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 2015-2 차 표준용어(28 어)

TTA 정보통신용어표준화위원회 심의완료 용어

TTA 정보통신용어사전(http://terms.tta.or.kr)

2015-08-28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본 자료는 정부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본 자료의 무단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정부 기금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0/100 기가비트 이더넷
40/100 Gigabit Ethernet, 40/100GbE

이더넷상에서 초당 40 또는 100 기가비트의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는 미국 전기 전자 학회(IEEE) 이더넷 규격(IEEE 802.3ba-2010).
서비스 거리에 따라 수 미터를 지원하는 40G/100GBASE-CR4, 40G/100GBASE-KR4, 100GBASE-KP4, 수백 미터를 지원하는 40G/10GBASE-SR4, 100GBASE-SR10, 10 킬로미터(km)를 지원하는 40G/100GBASE-LR4, 40 킬로미터를 지원하는 40G/100GBASE-ER4 등 다양한 규격이 존재한다. 주로 40 GbE는 4 채널×10 기가비피에스(Gbps), 100 GbE는 4채널×25Gbps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 거리가 늘면서 근거리 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은 물론 도시권 통신망(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광역 통신망(WAN: Wide Area Network) 및 무선 가입자망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산업, 항공, 자동차, 국방,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가상 라우팅 및 포워딩
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VRF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라우터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가상 라우팅 도메인으로 나누어 계층 3 네트워크 가상화를 제공하는 기술.
라우터에서 트래픽을 각각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이 향상되어 암호화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VRF 기술을 활용하여 수시로 고객에게 별도의 가상 사설 통신망(VPN)을 제공할 수 있다.

격자 부호 변조
Trellis Coded Modulation, TCM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는 통신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 기술과 변조 방식을 결합한 기술.
1976년 아이비엠(IBM)에서 재직 중인 오스트리아 출신 통신 공학자인 웅에어뵈크(Ungerboeck)에 의해 TCM이 제안되기 이전에는 부호화 기술과 변조 기술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기술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TCM 기술을 통해 부호화 기술과 변조 기술이 상호 관계를 가지며 결합됨으로써 큰 부호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정보 전송률 감소 없이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전화 시스템의 모뎀 기술로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미국의 1세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에이티에스시 디티브이(ATSC DTV) 시스템의 송수신 장치에도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엔디엔(NDN)
Named Data Networking, NDN

인터넷에서 콘텐츠 자체의 정보와 라우터 기능만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망에서는 콘텐츠와는 아무 상관없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패킷의 헤더에 내장되어 있는 주소 정보만을 이용하여 연결된다. 그러나 NDN은 해시 테이블(hash table)에 기반을 두는 피투피(P2P: Peer-to-Peer) 시스템과 유사하게 콘텐츠 자체의 정보와 라우터 기능만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아간다. 서버와 IP 주소 기반인 기존 인터넷 전달망을 대체할 미래의 인터넷 아키텍처로 고려된다. NDN은 콘텐츠 중심 네트워크(CCN: Content Centric Networking)와 동일한 개념이다.

인터클라우드(컴퓨팅)
inter-cloud(computing)

둘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연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자원을 연결·연계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의 연동 및 컴퓨팅 자원의 동적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인터클라우드의 제공 형태는 아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인터클라우드 대등 접속(peering) : 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직접 연계
- 인터클라우드 연합(federation)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자원 공유를 기본으로 사용자의 클라우드 사용 요구량에 따라 동적 자원 할당을 지원하여 논리적인 하나의 서비스 제공
- 인터클라우드 중개(intermediary) : 복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직간접적 자원 연계 및 단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중개 서비스 제공

다지점 협력 통신
Coordinated Multi-Point transmission and reception, CoMP

이동 통신망에서 셀(cell)의 경계에 있는 단말기의 전송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지국이 협력하여 통신하는 기술.
기지국 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단말기가 기지국에 신호를 보내면, 기지국에 수신되는 단말기의 신호 세기가 약하여 기지국이 이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CoMP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기지국이 협력하여 전송 효율을 향상시킨다. CoMP의 주요 기술로는 협력 스케줄링(coordinated scheduling), 협력 빔 형성(coordinated beamforming), 그리고 신호에 대한 공동 처리(joint processing) 방법이 있다.

대용량 미모(MIMO)
massive Multu Input Multi Output, massive MIMO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 입출력(MIMO) 기술.
수 G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5세대 이동통신에서 안테나 이득이 매우 높은 빔을 형성하여 가입자에게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증가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이용하여 여러 채널로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간섭에 강인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주로 10 GHz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시분할 교차 송수신(TDD: Time Division Duplexing) 방식의 시스템에 적합하다.

동일 채널 동시 송수신
In-Band Full Duplex radio, IBFD

하나의 주파수 채널을 사용하여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신 방식.
동일 채널 동시 송수신(IBFD) 방식은 1개의 채널을 사용하므로, 상향 회선(uplink)과 하향 회선(downlink)을 사용하는 주파수 분할 동시 송수신(FDD: Frequency Division Duplexing) 방식에 비하여 주파수 이용 효율을 최대 두 배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량 탑재 기지국
Cell On Wheels, COW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장착된 기지국.
차량 탑재 기지국(COW)은 스포츠 행사나 축제 등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서 서비스 용량을 확대하거나 재해 지역 등에서 이동 통신의 통신 가능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
spectrum incentive auction

주파수 이용권을 갖고 있는 스펙트럼 사용자가 해당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경매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600MHz 대역의 방송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방식은 먼저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이동 통신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주파수를 산정하는 '역경매(reverse auction)'를 진행한 후에 이를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경매하는 식이다. ※ 역경매: 일반 경매와는 달리 판매자끼리 가격 흥정을 붙여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심의 전자상거래이다.

마그네틱 안전 전송
Magnetic Secure Transmission, MST

루프 안테나가 내장된 휴대폰을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에 근접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에 접속시킬 때 발생되는 자기장과 동일한 자기장을 휴대폰에서 발생시켜 무선으로 신용카드 정보가 결제 단말기에 전달한다.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은 기존 마그네틱 결제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루프페이(LoopPay)사가 개발한 기술이다.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
Host Card Emulation, HCE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물리적 보안 요소(secure element)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
유심(USIM)과 같은 보안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NFC 결제 단말과 연결된다. 따라서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HCE)은 보안 요소를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비해 통신사나 제조사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HCE는 구글(Google) 안드로이드(Android) 4.4 버전 이상에서 지원이 된다.

후단부
backend

①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머 또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후면 부분. 시스템의 시작점이나 입력 부문을 의미하는 전단부(frontend)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시스템의 후면에서 시스템을 지원하는 부문을 지칭한다.
② 프로젝트나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③ 일반 대중은 접근할 수 없거나 폐쇄된 조직의 내부 운영.

딥 러닝
deep learning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 학습 기술.
딥 러닝은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하는 인공 신경망(ANN)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컴퓨터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정형화된 데이터를 입력받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게 하여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디브이비-에스2 확장 규격(DVB-S2X)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version 2 eXtensions, DVB-S2X

유럽의 디지털 방송 표준화 그룹인 유럽 전기 통신 표준 협회(ETSI)에서 표준화한 디브이비-에스2(DVB-S2)의 확장 규격.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과 모바일 방송에 대비한 차세대 규격으로 2014년 10월 공식 공포되었다. UHDTV 및 광대역 고효율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변조 방식을 64, 128, 256 에이피에스케이(APSK: Amplitude and Phase Shift Keying)까지 확장하였고, 롤오프 팩터(roll off factors)도 15%, 10%, 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필터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채널도 3개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중계기 사용 효율을 향상시킨 규격이다. 또한 DVB-S2X 규격은 변조 방식뿐만 아니라 채널 부호율(channel code rate)을 대폭 확장하여 자동차·선박·비행기 등의 이동 환경 서비스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적응적 변조 및 부호화(ACM: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방식의 효율도 개선시킨 규격이다. DVB-S2X 규격은 다양한 변조 방식 및 채널 부호율 확장, 채널 본딩 및 낮은 반송파 대 잡음 비(CNR: Carrier to Noise Ratio) 환경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의 DVB-S2 규격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디브이비-티(DVB-T)
Digital Video Broadcasting-Terrestrial, DVB-T

유럽의 디지털 방송(DTV) 표준을 제정하는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Digital Video Broadcasting) 그룹에서 제정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
소스 압축 및 시스템 규격은 엠펙-2(MPEG-2) 표준을 사용하고, 변조 방식은 직교 부호화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COFDM: Coded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을 사용한다. DVB-T 표준은 다수의 방송 영역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 유럽의 방송 환경 특성상 단일 주파수 방송망(SFN: Single Frequency Network)을 구성하여 인접한 방송 영역이라도 같은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DVB-T에서는 부반송파의 개수를 8k(6,817개 중 6,048개를 사용) 또는 2k(1,705개 중 1,512개를 사용)로 정하고 있으며 변조 방식, 보호 구간, 코드율에 따른 데이터 전송률을 가변할 수 있다. 2k 모드는 주파수 간격이 넓어 이동 수신에 적합하고, 8k 모드는 큰 SFN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방송의 장점은 높은 전송률로 고선명 텔레비전(HDTV) 구현이 가능하고, 이동 수신 및 SFN 구축이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HDTV, 이동 수신과 SFN은 동시에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첨두 전력 대 평균 전력비(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가 높아 송신기 출력이 커지며, 임펄스 잡음에 약한 단점도 있다.

에프오비티브이(FOBTV)
Future Of Broadcast TeleVision Initiative, FOBTV

미래 지상파 방송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글로벌 단일 방송 표준화와 산업 진흥에 대한 글로벌 공동 대응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 표준화 협력 단체.
지상파로 초고화질 텔레비전(UHDTV)을 실현하기 위한 표준화 규격 ATSC 3.0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창립 회원사로 에이티에스시(ATSC), 시비시(CBC), 시아르시(CRC), 디브이비(DVB), 이비유(EBU), 이티아르아이(ETRI), 티브이 글로보(TV GLOBO), 아이이이이-비티에스(IEEE-BTS), 엔에이비(NAB), 엔이아르시-디티브이(NERC-DTV), 엔에이치케이(NHK), 피비에스(PBS), 에스이티(SET)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방송 관계사와 학계, 표준화 기구가 동참하였으며, 글로벌 공동 협력이라는 취지와 부합한 진용을 갖추고 있다. 2015년에는 창립 회원사 포함 7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활동 중이며, 한국 방송사로는 케이비에스(KBS)와 에스비에스(SBS)가 참여하고 있다. FOBTV는 실질적 표준화 기구가 아닌 글로벌 협력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누리집: http://www.fobtv.org/

엠펙디(MPEG-D)
Moving Picture Experts Group-D, MPEG-D

엠펙(MPEG)에서 표준화한 오디오 기술 표준(ISO/IEC 23003).
MPEG-D는 세 부분(part)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다채널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하기 위한 엠펙 서라운드(MPEG Surround)이며 2007년 2월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다객체 오디오 신호를 부호화하기 위한 에스에이오시(SAOC: Spatial Audio Object Coding)이며 2010년 10월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부분은 오디오 신호뿐 아니라 음성 신호도 함께 부호화하는 통합 음성 오디오 부호화(USAC: Unified Speech and Audio Coding)이며 2012년 4월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지상(파) 클라우드 전송
Terrestrial cloud transmission

하나의 주파수 채널로 여러 개의 스트림(stream)을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 기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ATSC 3.0(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표준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하나의 지상(파) 채널에서 여러 개의 스트림(UHDTV, 모바일 HDTV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스트림에 리드-솔로몬(RS: Reed-Solomon) 오류 정정 부호와 저밀도 패리티 검사(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접하여 잡음에 강인하게 한 후에, 각각의 스트림을 적절한 전력비로 합하여 직교 부호화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OFDM)으로 보낸다.

코딩 트리 단위
Coding Tree Unit, CTU

영상 압축 기술인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에서 사용하는 계층적 부호화 구조 기술.
압축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기존 매크로 블록(macro block)은 16x16 픽셀의 고정 크기인 반면 CTU는 16x16 픽셀부터 32x32 픽셀, 64x64 픽셀까지 증가되는 가변 크기를 지원하여 압축 효율을 높인다. CTU는 루마(luma) 코딩 트리 블록(CTB: Coding Tree Block)과 크로마(chroma) CTB로 구성된다. 하나의 CTB는 다시 코딩 단위(CU: Coding Unit)들로 나눠질 수 있고 이 CU는 예측 단위(PU: Prediction Unit)와 변환 단위(TU: Transform Unit)로 나눠진다. PU는 인트라 또는 인터 예측의 단위이며, TU는 주파수 변환, 양자화의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비디오의 경우는 64x64 픽셀과 같이 큰 CTU를 사용하고, 저해상도 비디오의 경우 기존 매크로 블록과 동일한 16x16 픽셀 크기의 CTU를 사용하여 부호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절대 가청 임계
Absolute Threshold of Hearing, ATH

잡음이 없는 환경에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순수한 톤의 최소 음압 레벨.
이 임계값은 주파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1~5 ㎑의 주파수에서 최솟값을 나타낸다. 심리 음향(psychoacoustics) 모델을 이용한 오디오 압축에서, 어떤 대역 성분이 안들리는지, 부호화(coding)에서 무시할 수 있는 지를 계산하기 위하여, ATH는 종종 마스킹(masking) 방식과 결합해서 사용된다. 귀에 들리는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고, ATH 이하의 진폭을 가지는 모든 오디오 대역을 오디오 신호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사람의 귀는 나이가 들수록 소리에 둔감하기 때문에, ATH 커브는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2 ㎑ 이상의 주파수에서 크게 변한다.

미러링크
MirrorLink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In-Vehicle Infotainment) 시스템을 일체화하는 기술.
스마트폰의 음악 파일,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유무선 통신망을 거쳐 차량의 큰 화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러링크는 국제 단체인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CCC: Car Connectivity Consortium)에서 제정된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CCC의 미러링크 제품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소로 지정되어 있다.

금융기술(서비스)
FinTech,

이동 통신과 인터넷 기술을 금융 산업에 접목하여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자산 관리, 디지털 화폐, 그리고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등의 금융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금융 혁명을 일으킨다. 애플(Apple)은 2014년에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Apple Pay)를 출시했으며,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등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전자도 2015년 2월 미국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LoopPay)를 인수해 삼성페이를 내놓았다. 영어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이다.

디지털 중독 치유
digital detox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의 중독을 치유하는 방법.
디지털 기기의 중독 치유를 위해 인체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디톡스 요법을 디지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각종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명상, 독서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즉, 단식으로 몸에 축적된 독소나 노폐물을 해독하듯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정신적 회복을 취하는 것이다.

스마트 팜
smart farm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스마트 팜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 팜으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앱 중립성
app neutrality

앱이 모바일 운영 체제(OS)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 동작할 수 있는 성질.
앱 융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앱 중립성은 구글 안드로이드(Android)나 애플의 아이오에스(iOS) 등 모바일 OS 종류와 무관하게 앱이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망 중립성'(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앱 중립성'은 유사한 특성이 있다. '앱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은 예를 들어 삼성의 타이젠(Tizen)으로 제작된 앱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케듀롬
Keduroam

국공립 대학 정보기관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선랜 공동 사용 서비스.
케듀롬은 국공립대학 간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이용자 소속 대학에서 사용 중인 아이디(ID)로 다른 학교에서도 무선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서비스이다. 케듀롬은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커뮤니티를 위해 개발된 무선랜 로밍 서비스인 에듀롬(eduroam)을 본떠 만든 서비스이다.

인터넷 연동
Internet eXchange, IX

서로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간에 트래픽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인터넷 연동 서비스.
인터넷 연동(IX) 서비스를 통해 ISP 간의 상호 접속 이외에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콘텐츠 전송망(CDN: Content Delivery Network) 서버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 서버의 회선에 직접 연결되어 트래픽 중계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의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최초 IX 서비스는 1995년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을 미국의 IX에 의존함으로써 망 운영간 비효율적인 운영을 감수해야 했다. 현재 운영되는 국내 IX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하는 케이아이엑스(KIX), KT의 케이티아이엑스(KTIX), 엘지(LG)유플러스(구 데이콤)의 디아이엑스(DIX),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의 에스케이비아이엑스(SKBIX), 국내 중견 ISP가 연합하여 설립한 (주)케이아이엔엑스의 케이아이엔엑스(KINX) 등이 있다. 비영리 공공 인터넷망은 KIX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80여 개의 상용 ISP들은 KTIX, DIX, KINX, SKBIX를 통해 접속돼 있다.

TTA 정보통신용어사전